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가 2월 18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는 또한 내각부 총리, 당중앙위원회 부장, 제1부부장, 해당 부서 과장, 도당책임비서들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 근로단체, 무력기관의 책임일꾼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정치국 확대회의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의정이 결정되었다.

1.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 끝까지 관철할데 대하여

2. 조직문제에 대하여
확대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이 토의되었다.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다.

확대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 끝까지 관철할데 대하여》가 채택되었다.

결정서는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김정일동지의 유훈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길을 밝혀주는 우리 혁명의 교과서이며 과학적이고 백과전서적인 강령적지침이라고 강조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 부강조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대책내용을 결정하였다.

결정서는 첫째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제1차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결정서는 둘째로,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와의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결정서는 셋째로, 각급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두고 그 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함으로써 결정서에 제시된 과업들을 끝까지 집행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결정서는 넷째로, 내각을 비롯한 해당 기관들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



한 행정실무적대책을 세울데 대해 강조하였다.

확대회의에서는 둘째 의정인 조직문제를 보았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력사적인 결론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혁명의 중대한 력사적시기에 열린 이번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나타난 결함과 교훈들을 총화하고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였다고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지난 3년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대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의 길을 굳건히 이어왔으며 영웅적인 투쟁을 벌려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승리와 변혁을 이룩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유산인 당의 통일단결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우리 당이 강위력한 혁명의 참모부로, 불패의 전위대로서 공고발전되고 인민군대가 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강화되어 선군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었다.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헌신적투쟁에 의하여 난관과 시련이 겹쌓이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강성국가건설의 토대가 튼튼히 마련되고 인민의 리상을 앞당겨 실현할수 있는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되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지난 3년간의 투쟁을 통하여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방침, 장군님의 교시는 혁명의 교과서이며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하면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고 최후의 승리는 우리



의것이라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심장깊이 새겨안았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끝까지 관철하여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이 땅우에 현실로 꽃피워나가려는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확고한 의지이다.

오늘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앞에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 나가야 할 무겁고도 성스러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총직한 전사, 제자답게 장군님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삼고 모든 사업을 오직 장군님의 뜻대로, 장군님식대로 해나감으로써 이 력사적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실현하는것을 생명선으로, 주선으로 틀어쥐고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당조직들은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총결기, 총돌격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은 시대의 숨결이 높뛰는 참신하고 박력있는 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아 온 나라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차넘치고 일터마다에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집행정형을 건별로 따져보고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목표와 계획, 대책들을 현실성있게 세우며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당조직들에서 일군들이 사무실적사업방법과 소

방대식 일본새를 극복하고 지도를 아래에 접근시키며 당정책관철에서 나타나는 편향들을 제때에 포착하고 바로잡아나가도록 강하게 요구하는것이다.

당조직들은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중도반단하지 말고 일관성있게 내밀어 현실에서 그 생활력이 나타나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서 령도업적단위들이 앞장서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중의 유훈이고 평생소원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가운데서 인민들의 식

량문제, 먹는 문제, 입는 문제와 관련하여주시신 유훈부터 먼저 집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들을 정확히 실시하여 인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차례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베풀어오신 인민사랑의 시책들을 계속 살려 인민들이 수령님들의 뜨거운 사랑을 실생활을 통하여 페부로 느끼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서 일군들이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하자면 그들을 부단히 각성시키며 일군대렬을 잘 꾸려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부강조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가 있고 당의 부름따라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산악같이 일떠선 천만군민의 혁명적열정과 위대한 힘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못해낼 일이 없으며 점령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고 하시면서 오늘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지만 조선혁명은 우리 당이 정한 승리의 리정표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의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수령의 유훈을 받들어 이 땅우에 어떻게 부강번영하는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는가를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두다 승리의 신심드높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정신을 받들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2월 16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 군중, 군단급단위 지휘성원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차넘치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이 모셔져 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대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대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에 경애하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에 조선인민군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을 우러러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의 훈장보존실, 울음홀, 사적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돌아보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용기를 타시고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을 부감하신 다음 현지에 나오시여 건설사업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먼저 전용기를 타시고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을 부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용기 안에서 건설장의 전경을 내려다보시면서 당에서 비준해준 거리형성안의 요구대로 건축물들을 들여앉히니 정말 보기 좋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시간을 주름잡으며 질풍같이 내달리는 군인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1단계에 완공할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의 골조가 우후죽순처럼 일떠섰다고 하시면서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은 1970년대, 1980년대의 건설전투장을 방불케 한다고, 이곳에서 오늘의 평양정신, 평양속도가 창조되고있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2단계

건설도 잘해야 1단계에 건설한 대상들이 빛이 날수 있다고 하시면서 2단계 건설대상과 규모를 정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어 미래과학자거리건설현지에 나오시여 건설사업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미래과학자거리조감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시고 77호동 3층 1호, 지열취수펌프장 등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1단계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미래과학자거리를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정책을 힘있게 과시하는 거리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건설을 맡은 해당 단위의 일군들과 군인건설자들은 최상의 문명, 최상의 속도를 창조하겠다는 립장을 가지고 미래과학자거리를 후세에 길이 남을 거리로 완공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미래과학자거리를 건설하면서 살림살이에 필요한 가구비품들도 최상의 수준



에서 제작하여 놓아주며 리발소, 미용원, 세탁소, 목욕탕은 물론 옷수리, 구두수리 등을 할수 있는 편의시설들, 약국, 식당, 상점, 도서관을 비롯한 의료 및 상업봉사망들과 문화시설들도 구색에 맞게 잘 꾸려주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설계상, 공법상요구대로 건축공사를 다그치는것과 함께 대동강호안정리와 주변복화사업도 동시에 밀고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휘관들이 군인건설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불리올리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며 그들에 대한 후방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생활에 사소한 불편이 없도록 친부모의 심정으로 보살펴주어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미래과학자거리 1단계 건설을 올해 태양절까지, 2단계 건설은 당창건 70돐까지 무조건 끝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인

민군대의 건설력량을 더 증강하며 전당적,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미래과학자거리건설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은 우리 당 건설정책의 정당성, 우리 인민의 문명척도, 군민의 정신력이 어떤것인가를 보여주는 곳이라고 하시면서 당의 령도밑에 최근시기 사회주의대건설장들마다에서는 여기 과학자거리건설장과 마찬가지로 대변혁이 일어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한겨울의 추위속에서도 힘찬 전투를 벌리고있는 군인건설자들의 모습을 비행기에서도, 현장에서 보면서도 저렇듯 강하고 충직한 전사들이 있기에 당의 부강조국건설구상은 반드시 실현되리라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최고사령관의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였다.

본사기자

백두의 정신으로 통일조국 마중가자

북의 전역이 백두의 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끓어 오르고있다. 시련을 맞받아 어떻게 일어서야 하는지, 전변의 서사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북은 백두의 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세계앞에 보여주고있다.

인간을 끝없이 강하게 하고 언제나 앞날을 띠고하며 미래에 살게 하는 백두의 정신이야말로 민족정신의 근본이요 북의 국민만이 아닌 통일애국의 길에서 겨레모두가 지녀야 할 녀이고 정신적지주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조국통일이 형언할 수 없는 만년시련과 곡절, 막아서는 첩첩장애와 온갖 도전을 물리치고 이루어야 하는 그야말로 민족사적인 대업이기때문이다.

분렬 70년을 소급해보면 장구한 그 나날에는 민족분렬의 고통을 안고 몸부림쳐온 아픔만이 새겨져있는것이 아니다.

최악의 진통과 고초를 겪으면서도 좌절과 실망을 모르고 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온 자랑스런 모습들이 불멸의 군상으로 우뚝 솟아 기어이 기록해야 할 통일의 사명감을 깨우쳐주고있다.

자고로 정신은 행동을 지배한다고 하였다.

하다면 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온갖 난관을 이겨내며 멈춤없는 투쟁으로 통일을 마중해가는 그 정신력은 어디에 기인된것인가 하는것이다.

민족의 분렬에 대한 통절한 아픔? 통일에 대한 강렬한 열망?

이런 생각에 싸일 때마다 조국방문의 나날에 들었던 한편의 이야기가 되새겨지군한다.

1970년대가 저물어가던 어느 10월에 있는 일이라고 한다.

그때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우리 민족의 분렬을 조선반도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대치하고있는 힘의 균형상태의 반영으로 보면서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대두하여 통일전망에 검은 그림자를 던져주고있었다.

피도 많이 흘리고 시간과 정력의 소모도 실로 컸지만 나날이 통일의 앞길에 암초만 가로놓이는 현실을 놓고 통일은 이룰수 없는것으로 단정짓는 실망과 비판의 어조가 짙어가던 그때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는 통일의 전도에 대하여 비

관하는 론조는 결국 하나의 조선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속에서 나오는 그릇된 관점이라고 하시면서 조선을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 돌로 갈라지면 살수 없는 유기체와 같다고, 조선은 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이라고, 《조선은 하나다!》, 이것은 나의 확고한 의지이라고 하시었다고 한다.

조선의 분렬은 더는 어쩔수 없다는 기류가 여기저기서 떠돌고 통일성업에 한몸 내대었던 사람들속에서조차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실망하여 손뭉을 놓고있을 때 오직 국방위원장님께서서는 통일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품고계시었던 것이다.

나라의 분렬을 생명유기체의 동강으로, 나라의 통일을 하나로 합쳐져야 살수 있는 유기체의 결합으로 보시며 통일의 지로 온넛을 불태

우시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심중에 정신의 산악으로 승엄히 자리잡고있었던것은 백두산이었다.

언제인가 국방위원장님께서 백두산에 오르신적이 있었다.

눈보라가 세차게 태질을 하고 백두의 칼바람이 거세게 불어치는 산정에서 그분께서는 백두의 혁명정신은 만년을 맞

바나아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다시 일어나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조국을 통일하자면 많은 시련과 난관이 앞을 가로막을것이다, 그러나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싸워나가야 한다고, 영원히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싸워나가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고 한다.

통일에 사느냐 분렬에 죽느냐 하는 시대의 물음앞에 그분께서는 완강하고 견결한 정신, 백두의 정신으로 온 겨레를 불러일으키시었던



것이다.

그 백두의 칼바람으로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분렬의 광풍을 맞받아 쳐갈기시었고 꺾이면 꺾일지언정 쓰러지지 않는 백두의 본때, 백두의 기질로 통일의 대로를 힘차게 열어오시었다.

백두의 정신은 곧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정신이었으며 그분께서 이끌어오신 조국통일의 힘찬 견인력이었고 추동력이었다.

지금도 뇌리에 생생하지만 1996년 11월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역사적인 관문점시찰은 행성에 지울수 없는 총격을 주었다.

당시로 말하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북붕괴》설에 대해 요란스럽게 떠들어대고 동정과 불안이 엇갈린 세계의 시선이 북에 모아지고있던 때였다.

그러나 그 엄혹했던 고난과 시련의 나날에

도 국방위원장님께서서는 결코 북의 운명만을 생각지 않으시었다. 전체 조선민족의 운명을 생각하시었고 통일을 두고 누구보다 깊이 마음을 쓰시었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잘살겠다는 생각보다 조국통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앞세워야 하며 모든것을 조국통일에 지향시켜야 한다고,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수행할 비장한 결심으로 모진 고난과 시련도 뚫고나가야 한다는 참으로 간곡하신 가르침을 주시었다.

눈앞에 닥친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자고 해도 필사의 각오와 의지가 필요하던 그때 나라의 통일문제까지 해아리다는것은 사실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직 확고부동한 통일신념을 체현하신 국방위원장님께서만이 통일을 생각하고 통일을 확신하시였으며 다음아닌 그 통일을 이루시기 위해 최대의 긴

레이고있다.

눈보라가 날리는 백두산정에서 항일의 옛 전장들을 굽어보시며 김일성주석님과 마음속대화 나누시고 장중웅건한 백두의 련봉들과 가없이 펼쳐진 천리수해를 한가슴에 안아보시며 시대와 역사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감을 더 굳게 가다듬으신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백두의 기상과 담력으로 평양상봉을 마련하여 통일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실 통이 큰 결단을 내리시었다.

그로부터 몇달후 세계는 력사의 반동들이 떠벌이는 《붕괴》설을 흘날려버리고 환희롭게 펼쳐진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의 탄생이라는 특대사변을 목격하게 되였다.

새 세기의 문수령에서 분렬의 어둠을 걷어내고 통일의 려명을 안아온 민족사적인 대경사, 참으로 그것은 백두의 역센 뜻, 투쟁정신으로 자주통일의 새로운 길을 열어오신

국방위원장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었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한 인터넷은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리정표인 6.15공동선언은 다른데서 잉태될수 없고 다른데서 태어날수 없다. 6.15공동선언이 백두산의 정기를 받아 잉태되고 평양에서 태어났으므로 통일위업은 백두산의 힘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전하였다.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을 짓부시며 기운차게 전진해온 6.15시대, 또다시 평양상봉이 열리고 력사적인 10.4선언이 마련되며 6.15시대의 전성시대가 펼쳐진 격동적인 화폭들은 백두산의 힘으로 전진하는 조국통일운동의 힘있는 시위였다.

정녕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은 백두의 정신으로 민족의 자주통일성업을 이끌어오시고 그 길에서 불멸의 대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 통일의 찬란한 태양이시었다.

바로 그 힘이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철석의 통일의지로 우리 민족의 거족적인 통일운동에 활력을 부여주시며 이끄시였기에 온 겨레는 중첩되는 시련을 맞받아 조국통일대행진을 즐기차게 벌려올수 있었다.

오늘은 김정일국방위원장님 그대로이신 김정은원수님께서 백두의 기상과 담력으로 반통일세력에게 준엄한 철추를 내리시고 백두의 해님같은 덕화로 겨레를 품어안으시며 조국통일운동을 진두에서 이끌고계신다.

그분께서는 력사적인 올해 신년사에서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가기 위한 뚜렷한 앞길을 밝히시고 겨레의 통일속망을 하루빨리 실현할 획기적인 중대립장도 천명하시었다.

지금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의 반통일대결세력이 정세를 최악의 상태로 계속 몰아가며 북남관계개선을 악랄하게 방해하고있지만 백두가 만들어올린 천출위인께서 계시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우리 겨레를 힘차게 고무추동하고있기에 통일성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백두의 정신은 조선민족의 근본정신으로 끝없이 불타오르며 통일강국을 마중해가는 겨레의 앞길을 촉박하고있다.

재미동포 리정선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평양에서 진행된 김정일화 축전이 막을 내리었다.

해를 거듭하며 올해에 19번째로 성황리에 진행된 위인칭송의 꽃축전. 붉고 아름다운 김정일화들이 꽃바다를 펼치고 각계층 참관자들이 그칠새 없이 찾아오던 전시회장의 광경은 잊을수 없는 추억으로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졌다.

축전장에서 특별히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던것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전시대였다. 700여상의 김정일화로 하나의 큰 김정일화를 형상한 독특한 이 전시대는 전시장 1층의 중심홀에 크게 전시되어있었다.

지난해에도 그 전례에도, 축전이 진행되면 어김없이 중심홀에 놓이는 통일주체의 꽃전시장.

공화국의 수습개의 단위

들과 해외의 동포조직들, 개별적인 동포들도 자기들이 성의껏 준비한 김정일화들을 해마다 전시회에 내놓고있지만 조국통일3대헌장의 모형이 빛을 뿌리는 전시대는 언제나 가운데, 중심홀에 놓여있다.

그것은 이 나라 인민의 통일열망의 반영이 아닌가

에서 뿔어나오는 통일열망이 하늘에 닿았다.

그 녀원, 절절한 갈망이 축전장에 어리였는가, 700여상의 김정일화들이 분렬 70년의 아픈 년륜을 되새겨주며 통일이 어서 오라 부르는듯싶다.

조국통일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간절한 소원이

이고 필생의 위업이었으며 대대로 한강토에서 살아온 이 민족의 최대숙원이다.

은 겨레와 세계가 지켜본 이해의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우리는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고 이 땅위에 존엄높고 부흥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테 대한 웅대한 강령과 지침을 겨레에게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체제대결의 불미스러운 력사를 끝장내며 북남관계의 새 력사를 써나가는것은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이고 의지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드높이 통일의 앞길에 붙어치는 온갖 반통일대결전쟁의 광풍을 짓누르고 자주통일의 새 아침을 기어이 안아오려는 공화국의 결심과 의지가 하나로 된 조선지도를 형상화한 송이의 큰 김정일화를 펼쳐 놓기도 하는 꽃전시대에 그대로 어려있었다.

위인송배의 마음에 떠받들려 태어나고 온 세상에 만발하고있는 태양의 꽃이 조선반도의 남해안과 제주도에도 피어나고 온 삼천리를 붉게 물들일 자주통일의 그날은 기어이 오고야말것이라.

본사기자 최명제

통일념원 어린 전시회

한다. 통일에 대한 겨레의 갈망, 그것이 북이고 남이고 어찌 다르랴.

민족이 바라는 통일, 이 나라, 이 겨레를 살리는 통일, 통일이 최대의 애국으로 되고있는 공화국에서는 강산에 날로 더욱 뜨겁게 차넘치는것이 인민의 통일지향이고 녀원이다.

분렬 70년이 되는 이해, 이 나라 강산은 인민의 마

이름에서 뿔어나오는 통일열망이 하늘에 닿았다.

조국통일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간절한 소원이

이고 필생의 위업이었으며 대대로 한강토에서 살아온 이 민족의 최대숙원이다.

은 겨레와 세계가 지켜본 이해의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우리는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고 이 땅위에 존엄높고 부흥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테 대한 웅대한 강령과 지침을 겨레에게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이름에서 뿔어나오는 통일열망이 하늘에 닿았다.

조국통일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간절한 소원이

이고 필생의 위업이었으며 대대로 한강토에서 살아온 이 민족의 최대숙원이다.

김정일장군의 인간적 품모

한생을 평민으로 사신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탁월하고 독창적인 선군 정치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존엄을 지켜주시고 강성번영의 넓은 길을 열어주시는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아버지이시며 불세출의 령장이시다.

그이께서는 두차례의 력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시어 불신과 대결의 북남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관계로 전환시키고 6.15자주통일시대를 펼쳐주시었으며 세계 자주화위업수행에도 특출한 공헌을 하신 위인중의 위인이시었다.

그처럼 명망높고 온 겨레와 세인의 다함없는 호모를 받으신 장군님은 정치가이시기 전에 위대한 인간이시었다.

그이의 거룩한 인간적품모를 보여주는 감동깊은 이야기들의 일부를 이번호부터 소개한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저기 널리있고 도로상래 한 나라의 령도자이시기 전에 평민이시었다. 늘 특별한것을 싫어하시며 옷을 입으셔도 인민들이 누구나 입을 소박한 옷을 입고 식사를 하셔도 겸소하게 드시었다. 인민들과 한데 어울리시며 그들의 마음속이야기도 들어 주신분이시다.

주체58(1969)년 8월 어느날 밤 그이께서 한 건설장을 찾으셨을 때의 일이다.

흔히 건설장이 그러하듯 모래, 자갈, 철근, 블로크, 잔토무지들이 여기

저기 널려있고 도로상래도 말이 아니었다. 호각소리, 웨침소리가 그칠새 없고 용접불꽃이 쉽게 쏟아져내리는 건설장의 한쪽에서 군인건설자들의 무릎싸움이 한창이였다. 휴식인듯 했다.

장군님께서는 걸음을 멈추고 한동안 그들을 바라보시었다. 일꾼들이 뛰여가는것을 멈춰세우신 아버지장군님께서는 그들이 부러우신듯 걸음을 떼지 못하고 바라보시다가 《저런... 그저 우둔하게 골밭이들이군. 몇은 우회해서 익득과 배후를 타격

해야 하는건데...》라고 하시었다.

그러시고는 두세 걸음 더 다가가시면서 아쉬움을 금할수 없으신듯 《웬만하면 우리도 한번 해보는 건데...》라고 하시었다.

언제나 병사들, 못사람들과 허물없이 지내시는 그의 특유한 평민적품모가 어려있는 말씀이었다.

김일성종합대학시절도 룡화장공사장에서 남기신 이야기는 오늘도 전해지며 그의 인민적품모, 평민적품모를 부각시키고 있다.

너무도 소박하고 평범한 옷차림과 겸허한 말씀에, 몸소 한삽, 두삽 석탄을 담아주시는 근면한 모습에 아버지수령님의 자제분인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할머니였다. 그래서 자그마한 간격도 없이 그이께 허물없이 누구냐고 물어본 그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도 근로하는 인민의 아들이라고 대답해주시었다. 근로하는 인민의 아들로 사신것, 이것이 바로 인민위천을 좌우명으

로 삼으신 김정일장군님의 한생의 모습이었다. 력사는 오늘도 전한다.

낮에 밤을 이어 현 지지도의 길을 걸으신 장군님께서 련차운행에 지장이 생길가봐 특별렬차가 아닌 일반렬차를 타고가신 이야기며 밤알들이 탐스럽게 주렁진 산촌의 밤나무를 보시고 병사들과 인민들을 생각하시며 몸소 밤을 따시고 군밤을 맛보신 이야기, 강계 기초식품공장을 찾으시어는 그의 특유한 평민적품모가 어려있는 말씀이었다.

김일성종합대학시절도 룡화장공사장에서 남기신 이야기는 오늘도 전해지며 그의 인민적품모, 평민적품모를 부각시키고 있다.

너무도 소박하고 평범한 옷차림과 겸허한 말씀에, 몸소 한삽, 두삽 석탄을 담아주시는 근면한 모습에 아버지수령님의 자제분인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할머니였다. 그래서 자그마한 간격도 없이 그이께 허물없이 누구냐고 물어본 그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도 근로하는 인민의 아들이라고 대답해주시었다. 근로하는 인민의 아들로 사신것, 이것이 바로 인민위천을 좌우명으

명품에 붙여주신 이름

지금 사람들속에 널리 유행되고 있는 겨울신발가운데는 량강도습장화도 있다.

제품생산지는 북방 량강도의 혜산신발공장이다.

원래 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개발된 제품이였지만 신발이 하도 좋아 일반사람들이 누구나 즐겨신는 대중상품으로 되었다.

여기에는 그럴만 한 사연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다섯해전 5월이었다.

량강도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혜산신발공장을 현지도 생산공정에 이르기까

에 많은 비를 보내주시었다고.

2월 16일에 내린 많은 비, 이것을 한갓 우연적인 자연현상이라고만 볼수는 없다.

생각이 깊어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얼마나 이 나라 인민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내리었다. 마치 장마철에 하루종일 비가 오는 감을 느끼었다.

비만이 아니다. 일기에보를 보니 다음날인 17일에는 강원도를 비롯한 각지에서 많은 량의 눈이 내리었다.

원래 봄비는 적게, 짧게 내리는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이번 광명성절에는 례년에 없이 많은 비가 내리고 눈이 내려쌓이였다.

작년에 100년래의 큰 왕가물이 들고 땅과 저수지가 말라 항상 비가 내렸으면 하고 생각하던 것이 이렇게 많은 비와 눈이 내렸으니 사람들이 너도나도 좋아하지 않을수 없다. 그것도 꼭 2월 16일에.

이와 관련하여 항간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퍼져나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들을 생각하시어 자신의 생신날

용목김순신발이 인민들이 좋아하는 량강도의 특산품인만큼 이름을 《량강도습장화》라고 하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하시었다.

그러시고는 공장에서 그 제품지표를 독점해야 하며 멋있는 량강도습장화를 더 많이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이렇게 되어 그리 크지 않은 지방산업공장에서 업종에 한해서 만든 제품이 누구나의 기호에 맞고 수요가 높은 일반소비품의 가치를 가진 상품이면서 자기 지방, 자기 기업체의 얼굴을 가진 특산품으로 되게 되었다. 말하자면 제품은 자기의 고유한 멋을 되찾게 되었고 제작자들은 생산의 활성화로 공장의 수익성을 높일수 있는 기업관리와 경영의 눈이 뜨게 되었다.

본사기자 리 설

1년 365일, 그 모든 날들이 기쁨과 웃음만 넘치는 날로 되었으면, 그것이 한생으로 이어졌으면 하는것은 누구나의 소원이다.

인민의 그 소원을 현실로 꽃피우는 고크마운 사랑이 언제나 우리곁에 있다는것을 나는 얼마전 평양시버섯공장에 대한 취재를 통하여 깨닫게 되었다.

산뜻하고 멋있게 일떠선 기본생산건물과 공률식야외재배호동에서 생산공정의 자동화, 흐름선화를 실현하여 연간 600의 여러가지 버섯을 생산한다는 평양시버섯공장.

보다 풍성한 인민들의 밥상을 그려보는 우리에게 공장지배인이 전하는 사연을 듣는 사람들의 가

슴을 더욱 울려주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날 새해벽두에 인민들을 위해 마련된 회한한 창조물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1년 365일이 이런 날들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말씀하

렘없는 인민으로 내세워주시려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미림송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을 비롯한 세계일류급의 문화시설들을 안겨주시며 일년 삼백에순다섯날 험난한 눈비를 다 맞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기쁨은 곧 인민의 행복이고 그 행복을 가꾸기 위해 온 한해 인민을 위한 사랑의 천만리길을 이어가시는 것이 아니던가.

자애로운 아버지의 사랑이 언제나 따듯이 보살펴주기에 우리 인민들이 맞고 보내는 365일의 날과 날들은 기쁨과 웃음만 넘치는 날과 날로 새겨지는 것 아니라.

본사기자 리 경순

속을 남기신 원수님.

언제나 마음속에 인민을 안으시고 인민들과 혈육의 정을 맺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해는 인민을 위한 사랑의 날과 달, 인민의 행복을 가꾸시는 헌신의 삼백에순다섯날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기쁨은 곧 인민의 행복이고 그 행복을 가꾸기 위해 온 한해 인민을 위한 사랑의 천만리길을 이어가시는 것이 아니던가.

자애로운 아버지의 사랑이 언제나 따듯이 보살펴주기에 우리 인민들이 맞고 보내는 365일의 날과 날들은 기쁨과 웃음만 넘치는 날과 날로 새겨지는 것 아니라.

본사기자 리 경순

단상 사랑의 봄비

두 글자밖에 안남는다고 하시던 장군님의 말씀, 그처럼 장군님의 한생은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기 위한 애민헌신의 한생이였다.

산골마을의 한 농가를 찾으면 그이께서 친부모의 손길로 열어보신 쌀독을 볼수 있고 어느 섬마을 외진 집에 가보면 장군님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이 있다. 인민이 누리는 행복, 그것은 장군님께서 한평생 겪으신 로고와 바꾼것이 라고 해야 할것이다. 인민들을 찾아가는 것이 곧 자신에게는 휴식이요 기쁨이라고 하시며 인민들을 위해 바치시는

그이께서 바치신 로고와 헌신이 마음에 마쳐와 눈물부터 앞서는 인민들이다. 그렇게 자신을 깡그리 다 바치시며 이 땅에 뿌리신 만복의 씨앗들이 오늘은 하나하나 알찬 열매를 맺고있으며 인민은 행복의 향유자가 되어 기쁨을 구가하고있는 것이다.

인민에 대한 사랑이 너무도 지극하시여 장군님께서는 자신의 생신날에 인민들에게 사랑의 단비를 듬뿍 안겨주시는 것만 같았다.

아, 고크마운 장군님. 반고 또 받아도 끝이 없는 장군님의 사랑, 그이께서는 오늘도 친아버지정도로 우리모두를 돌보아주시고 이 조선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시는것이다.

김연희



2월의 축포

경사로운 광명성절을 맞는 2월의 하늘가에 장쾌한 축포가 터져오른다.

바라볼수록 공화국을 존엄높은 백두산대국으로 온 세상에 펼쳐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 황홀경을 이룬 축포바다에 뜨겁게 안겨온다.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려가는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무궁창창한 미래를 축복하듯 천지를 물들이며 아름다운 꽃보라되어 끝없이 날아오른다.

가장 값높고 보람있는 영원한 삶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김현환이 쓴 《가장 값높고 보람있는 영원한 삶》이라는 제목의 글이 8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홈페이지에 실렸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1994년 11월 1일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에서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생명으로 된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었다고 글은 지적하였다.

로작에는 사람의 생명의 본질과 삶의 가치에 대한 주체적견해가 천명되어있으며 사회주의의 진리성과 우월성이 과학적으로 론증되어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로작에서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사람은 사회적존재로서 자주적권리를 가지고 자주적요구를 실현하면서 살아야 사회적존재를 지니고 존엄있게 산다고 말할수 있다고 가르치시었다고 밝혔다.

그이께서는 사람의 가장 값높고 보람있는 삶은 자기 운명을 사회적집단의 운명과 결합시키고 사회적집단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면서 사회적집단의 사랑과 믿음속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것이라고 천명하시었다고 지적하였다.

국방위원장께서는 사회정치적생명의 요구를 떠나 육체적생명의 요구만을 추구한다면 아무리 풍족한 물질생활을 누린다고 하여도 그것은 결코 값높은 생활로 될수 없으며 그러한 물질생활은 사람의 본성과 배치되는 동물적인 생활이나 다름없는 기형적이고 변태적인 생활이라고 가르치시었다고 강조하였다.

육체적생명보다 사회정치적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는것은 사회적존재인 인간의 본성적요구라고 하면서 글은 민족,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서 사는 삶, 자주위업에 헌신하며 생을 바친 삶은 영생한다고 밝혔다.

본사기자

자본주의가 흉내낼 수도 가질 수도 없는 조선의 귀중한 것 (1)

인민을 위한 일에 수지타산을 모른다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인 공화국에는 세상이 모르고 다른 나라들에는 없는 자기 식의 독특하고 유일한 사회현상들이 적지 않다. 인간의 모습으로부터 사람들사이의 관계, 사회적정책과 정치, 사회문화시설들과 발전속도, 국가와 사회의 기상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수백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자유와 번영》의 표본이라고 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흉내낼 수도 만들어낼 수도 없으며 가질 수도 없는 유독 조선만의것인 귀중한 것이다.

본사편집국은 그 귀중한 《우리의것》을 찾아 취재의 길에 올랐다.

사회주의조선에서는 인민을 위한 일에 수지타산을 모른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도 《인민을 위해 당하는 국가의 <손실>은 손실이 아니다. 인민의 복리를 위해 더 많은 돈이 지출될수록 우

리 당은 더 큰 기쁨을 느끼며 후대들을 위해 더 많은 <손실>을 당할수록 우리 국가는 더 큰 만족을 느낀다.》는 구절이 있다.

수지타산은 지출과 수입의 비율을 따져 생산능률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보편적인 경제계산방법이다. 수지타산이 맞으면 사업을 벌여놓고 지출에 비해 벌로 수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취소하고 다른 사업으로 방향을 돌리는것은 기업관리, 경제사업에서 하나의 공식처럼 되고있다.

그러나 설사 수지타산이 맞지 않고 경제적으로 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인민이 바라고 인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대담하게 밀고나가는것이 공화국이 다. 그것은 인민의 복리증진과 후대들을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하는것이 공화

국에서는 더 큰 기쁨과 만족으로 되기때문이다.

국가의 손실을 계산하기 전에 인민의 행복과 그속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의 웃음소리를 먼저 가늠해 보며 사랑의 정치를 펼치는 조선식사회주의제도.

어느해인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식료가 공공업무 협의회를 조직하셨을 때의 일이다. 긴장한 자금사정으로 어느 한 공장건설을 좀 뒤로 미루었으면 하는 해당부서 일꾼들의 의향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물론 공장을 하나 짓자면 타산을 해 봐야 한다, 그러나 타산을 할 때가 따로 있지 아무때나 수만알부터 먼저 튀기지는 말아야 한다, 모두 자기 어머니를 생각해 보라, 천이 없으면 자기 단벌옷이라도 뜯어서 자식들에게 옷을 해입히

고 쌀이 없으면 자기 머리를 잘라 팔아서라도 자식들에게 밥을 해먹이는것이 우리 어머니들이다, 이런 타산을 모르는 사랑을 가져야 인민들에게 하나라도 더 해줄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밀지는 장사는 하지 말라고 하지만 인민들을 위해서는 밀지는 장사도 해야 한다, 인민을 위해서는 타산을 앞세우지 말자, 이것이 나의 산수이고 계산방법이라고 하시었다.

국가도 인민을 위해 필요하다는 절세위인들의 인민관, 인민사랑은 공화국에서 통용되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와 함께 인민들에게 덕이 얼마만큼 차려지는가에 대한 새로운 계산법도 낳았다.

어머니의 사랑처럼 타산을 모르는 국가의 극진한

인민사랑이 펼쳐놓은것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무상치료제, 무료교육제, 어린이들에게 하루도 땀없이 쉬게 하는 공휴일, 매우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는 기초식품, 비누와 치약, 치솔을 비롯한 갖가지 생활필수품들, 많은 자금을 들여 현대적으로 일떠세워 근로자들에게 돈 한 톨 안받고 거저 주는 살림집,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와 지하철도의 공짜나 다름없는 낮은 요금...

지금 인민의 기쁨과 웃음이 넘쳐나는 세계적수준의 문수물놀이장과 마식령 스키장도 경제타산을 먼저 앞세웠더라면 애당초 일떠세지도 못했을것이다.

얼마 있으면 공화국에서는 국가적조치로 전국 학생들에게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형식과 색깔 등을 특색있

고 더욱 아름답게 한 새 교복(겨울용교복, 여름용교복)이 공급되게 되는데 이것 역시 인민을 위한 일에 수지타산을 모르는 공화국에서만 볼수 있는 일이다.

언제인가 평양화장품공장을 찾은 서유럽의 한 국제대표단 단장은 《이렇게 많은 외화로 원료와 자재를 수입하여 생산한 소비품을 거저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인민들에게 공급해 주다니 이것이야말로 대포를 쏘아 참새를 잡는 격이 아닌가. 위대한 령도자의 보살핌을 받으며 행복한 생활을 누려가는 공화국인민들이 부럽다.》라고 말하였다.

인민을 위해서라면 설사 대포를 쏘아서라도 참새를 잡는것이 공화국의 정책이고 계산방법이다. 이러한 정책과 현실은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하고 기업의 리윤을 위해서라면 인민의 리익과 지어 생명까지 마구 해치는것이 자본주의현실이다.

지난해 4월 300여명의 무고한 어린 생명을 바다속에 수장시킨 남조선의 《세월》호침몰사건도 인간의 존엄과 생명우에 돈이 지배하는 사회가 낳은 비극이었다. 당시 남조선의 어느 한 잡지에는 이런 글이 실렸었다.

《...정작 이 나라의 국정최고책임자의 입에서 튀어나온건 (세월)호 참사이후 국내소비위축을 걱정하는 <고상한> 설교였다.》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등진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들에게 진정어린 위로와 보상을 못해줄망정 경제위기와 침체를 먼저 생각하는것이 썩어빠진 자본주의이고 남조선의 비참한 현실이다.

본사기자 김준경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수백만의 학생들이 받는 새 교복

머지않아 공화국의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전문학교, 대학 학생들이 새 교복을 받게 된다.

이번에 새로 만든 교복은 지난 시기의 교복과는 사뭇 달라 눈길을 끌고있다. 국가산업미술지도국, 식료일용공업성 피복연구소, 평양미술대학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 창작한 교복도안들중에서 가장 우수한것이 선정되어 새 교복으로 공급되게 된다.

이미 견본품을 만들어 평양시와 여러 도, 시, 군들에서 착용실험을 하였는데 평판이 매우 좋다고 한다. 검은 끈색으로 되어

있던 종전과 달리 새 교복의 색깔과 형태가 교종별로 다양하면서도 밝은 양상을 띠고있어 주위환경이 더 환해지고 거리의 면모가 달라질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있다.

특히 회색갈로 된 웃옷과 끈청색바지를 입어본 남자대 학생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 다니실 때 입으셨던 교복과 비슷하다며 저마다 좋아하고있다. 회색양복과 끈청색치마로 된 여자대 학생들의 겨울교복도 그들에게 아주 잘 어울려 평가를 받고있다.

소학교와 초급 및 고급중학교 남학생들의 겨울교복은 단정한 감

을 주는 단긴깃형태로 되어있다. 소학교 남학생들에게는 뒤눌기를 좋아하는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여름철에 짧은 바지와 연청색사프를 입히도록 하였다.

진자주색의 웃옷과 진회색갈의 치마를 입은 소학교, 초급 및 고급중학교의 녀학생들의 모습이 정말 곱다며 교직원들과 학부모들이 기뻐하고있다.

이번에 소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모든 학생들에게 봄, 가을, 겨울교복과 함께 여름교복이 동시에 안겨지게 된다. 소학교 신입생들에게는 교복과 함께 배낭식가방과 신발도 공급된다고 한다.

식료일용공업성 피복연구소의 박현식소장은 온 나라의 수백만 학생들에게 국가부담으로 교복을 만들어 해입히는것은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세세대들을 강성국가건설의 역군으로 키워주는 고마운 우리 제도에서만 꽃피날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교복을 만들어 입힐것을 발기하신분도, 소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몸소 가르치신 생산과 관련한 혁명적인 조치들을 취해 주신분도 우리 원수님이시다.》라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며칠전 아침 출근길에서였다. 버스정류소에 도착하니 출근길에 오른 사람들이 서로 양보하며 버스에 오르는 모습이 정답게 안겨왔다.

이때 《좀 비켜주세요.》라는 소리와 함께 여러명의 사람들이 특류영예군인을 부축하고 버스에 오르는것이였다.

사람들의 손에 떠받들려 영예군인좌석에 앉은 그의 얼굴에는 불편한 몸임에도 생기와 활력, 기쁨과 고마움이 넘쳐있었다.

《고맙습니다. 제가 뭐라고...》

《뭘 그렇니까. 우리 사회에서 영예군인들이야 나라의 귀중한 보배가 아닙니까.》

뜨거운 진정과 믿음에 넘쳐 오가는 말이였다. 영예군인!

우리 사회에서 영예군인이라고 하면 군사복무기간 부상을 입고 재대되어 국가적배려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자본주의 나라 같으면 따뜻한 손길과 방조가 있었기에 그는 급병으로 침상에 쓰러지면서도,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마침내 우리 시정을 이루고 사는 공화국에서는 영예군인들이 만

이런 현실을 너 아니면 나,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작용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찌 생각이나 할수 있었는가.

진정 영예군인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존경은 조국을 위해 자기를 바친 아름다운 인간들에게 사회가 주는 표창이며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남을 위해 사랑과 진정을 깡그리 바칠줄 아는 미풍이 활짝

꽃피어나고있는 우리 사회에서만 펼쳐질수 있는것이다.

하기에 오늘 영예군인들은 나라의 보배로, 꽃방석에 앉혀 우대해야 할 사람들로 어딜 가나 만사람의 축복속에 떠받들려 우는것 아니랴.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 어린 시선을 받으며 시종 얼굴에서 웃음을 감추지 못하는 영예군인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생각하였다.

—세상에 이 나라의 영예군인들처럼 값높고 복 받은 삶을 누리는 사람들은 없을것이라고. 모두가 친형제, 친혈육이 되어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 우리 제도가 제일이라고.

김선아



대학, 전문학교학생 겨울교복

중학교학생 겨울교복

소학교학생 겨울교복

세기를 이어오는 전쟁연습을 끝장낼 때이다

사람이 한생을 남의 위협을 받으며 산다는것만큼 고통스러운것은 없다.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이다.

외세에 의해 국도가 동강나고 민족이 분열된것만도 가슴아픈데 여기에 더하여 항시적인 전쟁위협속에 살아왔으니 우리 민족은 장장 70년을 2중3중의 고통과 불행속에 살아온것이다. 우리 민족이 사람의 한생과 맞먹는 오랜 세월 겪은 이러한 비극의 역사, 고통의 역사를 끝장내자고 공화국은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올해에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협을 제거하고 긴장을 해소하며 평화적분위기를 마련할데 대하여 미국과 남조선당국에 제의하였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에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올해에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협을 제거하고 긴장을 해소하며 평화적분위기를 마련할데 대하여 미국과 남조선당국에 제의하였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에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올해에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협을 제거하고 긴장을 해소하며 평화적분위기를 마련할데 대하여 미국과 남조선당국에 제의하였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에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올해에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협을 제거하고 긴장을 해소하며 평화적분위기를 마련할데 대하여 미국과 남조선당국에 제의하였다.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하고있는 미군과 남조선군

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은 공화국의 제의를 외면하고 새해벽두부터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소동을 더욱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조선반도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가고있다. 최근에는 온 겨레와 세계가 강력히 규탄배격하고있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기어코 강행하려 하고있다. 그것은 지난해보다 더 크게 말이다. 이것이 조선반도정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내외호전세력들이 《년례적》이니, 《방어적》이니 뭉니 하며 침략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정당화하지만 이 밝은 세상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다.

인디언의 해골더미에 솟은 미국이란 나라가 국가형성도 침략으로 이루어졌고 오늘과 같이 비대해

인디언의 해골더미에 솟은 미국이란 나라가 국가형성도 침략으로 이루어졌고 오늘과 같이 비대해

형별로 짜놓은 북침전쟁계획에 따라 《포커스 테너》, 《프리덤 볼트》, 《팀 스피리트》, 《런합전시증원연습》, 《키 리졸브》, 《독수리》, 《을지 프리덤 가디언》과 같은 각종 대규모합동군사연습들을 끊임없이 벌려왔다. 새 세기가 들어와 그 도수는 더욱 높아가고있다. 걸으로는 《방어》에 대해 떠들고있지만 그 연습의 침략적정격을 가리울수는 없다.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뻗어나고 있는 미군사연습에 참가하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위협을 그 목적과 성격에 있어서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한 북침전쟁연습이다.

미국은 제땅도 아닌 남조선에 침략군대를 항시적으로 주둔시켜놓고 방대한 침략무력과 첨단전쟁장비들을 동원하여 류

수십대의 함재기를 보유하고있을뿐아니라 4척의 이지스함과 7척의 구축함, 1~2척의 핵잠수함 등으로 항공모함정단을 이루고있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우는 미항공모함은 완전한 공격형전력이다.

《B-52》 핵전략폭격기 역시 그렇다. 1950년대 이전 쏘련에 대한 핵공격을 목적으로 개발된 《B-52》는 작전반경이 무려 7 200km이며 최대항속거리 1만 6 000km에 달한다. 핵무기는 물론 10Mt 또는 24Mt급 수소폭탄 4발을 탑재할수 있을뿐아니라 핵탄두순환미사일 20발을 탑재, 발사할수 있다. 지난 이라크 전쟁당시 사용된 폭탄의 40%이상을 투하하여 살인악명을 떨친 핵공격무장 장비이다. 북남 삼천리, 동서 600리밖에 안되는 자그마한 조선반도를 놓고 이런 요란한 핵공격장비들이 과연 《방어》를 위해 필요한것인가.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

합동군사연습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양점령》, 《지휘세력 및 전략적거점에 대한 정밀타격》, 《북핵시설제거》, 상륙 및 기습작전, 시가전, 《점령》 후 치안작전 등과 같은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전복하기 위한것

하지만 남조선집권자가 그 무슨 《통일준비위원회》단회의라는것을 벌려놓고있다. 올해 들어와 처음으로 열린 이 회의에서 박근혜는 《북이 변화의 물결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속히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서야 한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조국해방 70돐을 맞아 올 해에 남북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이루 하려는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과 온 겨레의 념원에 역행하는 용납 못할 정치적도발이 아닐수 없다. 일방이 타방에게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강요하는 방법으로는 통일 될수 없으며 그것이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 재난만을 들이치게 되는데는 지난 북남관계사가 보여주는 교훈이다. 하기에 공화국은 지금까지 일관하게 사상과 제도, 리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로, 두개 정부에 기초한 량방국을 세우는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그 리행을 위해 할수 있는 노력을 다해왔다.

미국은 《쏘니 픽처스》 영화제작보급사에 대한 해킹사건을 근거로 해서 북의 소행으로 몰아 제재를 강화하고 인간소스케기들과 함께 반공화국배라살포를 감행하였다라고 규탄하였다.

남북간 신뢰구축의 첫걸음을 떼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전개하는 침략적인 군사연습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미국은 《런합체유지》를 구실로 3 000명의 미군부대를 더 증강하여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기로 작정하고 미국 본토 플로리다주의 특수작전사령부에서 공화국의 핵과 미사일을 제거하기 위한 비밀모의를 벌린데 이어 그것을 실천에 옮길 미국남조선련합사단까지 편성하였다. 뿐만아니라 새해벽두부터 미국대통령 오바마까지 나서서 그 무슨 《대통령행정명령》으로 새로운 대조선 《추가

제재》를 선포한데 이어 공화국을 놓고 《독재국가》니, 《시간이 흐르면 그런 정권은 무너질것》이라느니 하고 떠들어대다가 하면 고립의 포위망과 압살의 봉쇄망을 더 바짝 조여보려고 광기를 부려대고있다.

세기를 이어 침략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려오면서 군사적압박으로 공화국을 강점하려는 미국의 흥제가 현시기 더욱 무모한 단계로 몰달음치고 있는것이다.

공화국은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침략책동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자기의 군대를 무적의 강군으로 강화해왔으며 세기를 이어 지속되어오는 미국의 항시적인 핵위협에 대치하여 자기의 핵억제력을 튼튼히 다져나가고 있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백수십년전부터 조선에 대한 침략행위를 감행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실로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여왔으며 오늘날까지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매달려 《북붕괴》의 허황한 망상을 실현해보려고 미중유의 제재와 고립압살책동, 북침전쟁연습소동에 매달리는 미국과 반드시 계산할것이다.

본사기자 서 희

시론: 북남관계개선에 이바지하는 대화가 되어야 한다

《싸우더라도 만나야 한다.》, 《북은 또 꿈을 꿔왔다.》 북남대화화 관련하여 남조선당국자들속에서 울려나오는 말이다. 그들의 말은 대화는 대화대로 하고 대결은 대결대로 하자하는것이다. 본질에 있어서 이것은 《대화있는 대결》을 추구하고있는것이다.

북남대화화 대결상태를 끝장내고 통일의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하는것인데 대결을 계속 할바에야 대화를 아무리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금 남조선당국의 동족대결행위는 적당히 눈감고 넘어갈 작은 문제가 아니라 북남관계의 운명과 미래와 관계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대화상대방의 사상과 제도자체를 부정하고 《체제통일》의 망상을 어떻게 하나 실현하기 위해 온갖 책동을 다하며 거기에는 동족을 겨눈 대규모의 북침합동전쟁연습도 해마다 북의 턱밑에서 벌려놓고있다. 이런 대결상태, 전쟁책동이 계속되는 한 북남관계는 파국에서 벗어날수 없고 전쟁밖에 일어날것이다. 그런데도 남조선당국은 대조선 《붕괴》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낸 미국에 덜어놓고 추종하여 동족의 관계개선을 위한 진정어린 호소는 애당초 들으려고 하지 않고 대결과 전쟁책동에 같이 충추고있다.

이런 상대와 마주앉아 과연 대화를 할수 있으며 설사 대화 열려도 무슨 성과가 있겠는가.

대결정책, 전쟁책동은 중단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북에 대고 대화에 나오라고 하는것은 결국 북남대화화 판심이 있는듯이 생색이나 내고 여론을 오도해보려는 속임수라고밖에 해석할수 없다.

남측은 싸우더라도 만나자고 하지만 싸움만 하는 대화, 합의도 지켜지지 않는 대화는 해자자 북과 남이 마주앉아서도 싸움만 한다는 세간의 비난밖에 초래할것이다 없다.

북과 남이 싸우지 말고 힘을 합쳐 통일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것은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진정으로 겨레가 바라는 대화가 되자면 북남관계개선에 이바지하는 대화로 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화있는 대결》을 추구하고 회담장밖에서도 싸우고 회담장안에서도 싸우자고 하고있으니 과연 이것이 민족의 운명을 놓고 책임적인 선택을 해야 할 남조선당국으로서 옳바른 처사인가 하는것이다.

남조선에서 《대화있는 대결》론은 《유신》독재의 창안품이었다.

1970년대 북과 남사이에 대화의 문이 열리고 7.4공동성명이 발표되었지만 《종이장 한장이다 운명을 내맡길수 없다.》고 하면서 《대화있는 대결》을 부르짖은 《유신정권》에 의해 북남대결이 더욱 격화되고 민족분열의 어둠이 더욱 짙어간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남조선당국의 극도에 이른 동족대결정책, 북침전쟁소동이 계속되는 한 북과 남이 마주앉아 대화를 해보야 시간강비에 불과하다는것은 북남관계의 폭절과 파국으로 이어진 지난 한해의 일들이 너무나 잘 말해주고있다.

이제 그것을 다시 반복하겠는가. 남조선당국은 《대화》를 말하기 전에 저들의 반대화, 반통일, 반평화적인 행위부터 반성하고 민족을 위하는 옳은 자세로 돌아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최광혁

하지만 남조선집권자가 그 무슨 《통일준비위원회》단회의라는것을 벌려놓고있다. 올해 들어와 처음으로 열린 이 회의에서 박근혜는 《북이 변화의 물결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속히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서야 한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조국해방 70돐을 맞아 올 해에 남북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이루 하려는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과 온 겨레의 념원에 역행하는 용납 못할 정치적도발이 아닐수 없다. 일방이 타방에게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강요하는 방법으로는 통일 될수 없으며 그것이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 재난만을 들이치게 되는데는 지난 북남관계사가 보여주는 교훈이다. 하기에 공화국은 지금까지 일관하게 사상과 제도, 리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로, 두개 정부에 기초한 량방국을 세우는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그 리행을 위해 할수 있는 노력을 다해왔다.

이제 그것을 다시 반복하겠는가. 남조선당국은 《대화》를 말하기 전에 저들의 반대화, 반통일, 반평화적인 행위부터 반성하고 민족을 위하는 옳은 자세로 돌아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북남관계개선에 제동을 거는 행위의 중지를 요구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얼마전 서울 룡산에서 153차 평화군축집회를 가지고 북남관계개선에 제동을 거는 행위를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조국해방 70돐, 민족분열 70년이 되는 올해에 남북관계개선의 새로운 분위기가 마련되었지만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으로 또다시 대결상태로 되돌아갈 위기에 처해있다고 비난하였다.

《통일을 준비》한다는 회의에서 북의 《개혁》과 《개방》이니, 《비핵화》니 뭉니 한것은 그에게 《체제통일》의 야망밖에 없다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보인것으로 된다.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느니 하는 판에 박힌 타령을 또다시 늘어놓았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조국해방 70돐을 맞아 올 해에 남북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이루 하려는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과 온 겨레의 념원에 역행하는 용납 못할 정치적도발이 아닐수 없다.

《통일을 준비》한다는 회의에서 북의 《개혁》과 《개방》이니, 《비핵화》니 뭉니 한것은 그에게 《체제통일》의 야망밖에 없다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보인것으로 된다. 《통일준비위원회》단회의라는것을 벌려놓고있다. 올해 들어와 처음으로 열린 이 회의에서 박근혜는 《북이 변화의 물결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속히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서야 한다.》

화만 불러오는 집권자의 입

미국은 《쏘니 픽처스》 영화제작보급사에 대한 해킹사건을 근거로 해서 북의 소행으로 몰아 제재를 강화하고 인간소스케기들과 함께 반공화국배라살포를 감행하였다라고 규탄하였다. 남북간 신뢰구축의 첫걸음을 떼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전개하는 침략적인 군사연습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의 추태야말로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가로로온 일이 아닐수 없다.

지금 북남관계의 전도가 더욱 암담해지고있는것도 바로 남조선당국이 미국에 추종하여 체제대결 야망에 환장이 되어있기때문이다. 외세와 야합하여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를 북침전쟁을 위한 연습장, 출발지점으로 섬겨버치는가 하면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들에서까지 상선의 지시대로 동족을 혈투는 모략책동에 광분하는 남조선 당국의 망동은

지금 온 겨레의 저주와 분노를 불러일으키고있다.

남조선당국이 끝끝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편승하여 대결의 길을 택한다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특별성명에서 경고한바와 같이 가장 참혹한 종말을 면할수 없다.

결국 남조선집권자의 입이야말로 북남관계의 암초이고 화만 불러오는 불행의 화근이라는것이 그의 대결망발을 통해 다시금 똑똑히 드러났다. 박근혜는 북남대결을 부추기는 발언이 불러오는 돌이킬수 없는 파국적후과에 대해 똑똑히 명심하고 함부로 입부리를 놀리지 말아야 한다.

김철민



본사기자

새해정초에 정책전환을 할데 대한 공화국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진보다 더 광기를 띠고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도발책동에 매달리고 있다.

《추가제재》를 선포하고 《테로지원국》 재지정을 획책하는가 하면 남조선당국에 북남관계개선의 《속도조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전쟁연습

신경쇠약증에 걸린 미국

과학적으로 고등신경계 통의 기능이 약해져서 자국에 대하여 지나치게 민감한 병을 신경쇠약증이라고 한다.
이 병은 신경과민, 번민, 머리아픔, 잠자기장애, 기억력감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전쟁을 하자는것도 아니고 정책전환을 하라는 공화국의 요구에 무척이나 당황하여 안달복달하는 미국이 노는 꼴을 보면 꼭 이 증세다.
그렇 수밖에 없다.
1866년 《서민》호의 침입으로부터 조선에 대한 미국의 침략력사는 근 150년이나 된다.

미국의 고민을 친 탄 한다

를 계속 벌려대고 자국국민들까지 돈으로 매수하여 내몰아 반공화국베를 살포놓음도 벌려졌다.
자칭 《초대국》이라 하는 미국이 왜 체모에 어울리지 않게 극적인 파민 반응을 보이는가를 몇가지로 진단해본다.
우리 민족끼리의 열풍이 휘몰아치는 속에 남조선에서는 대규모반미초물시위까지 일어났다.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으로 역사를 새롭게 쓰겠다는 공화국의 의지의 선언은 그때의 불안을 다시 자래운다.
배배자의 몰골로 조선반도에서 영영 쫓겨가는 악몽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미국대통령은 골프채를 집어던지고 황황히 달려와 《추가제재》를 역설하고 정계, 군부 우두머리들은 《테로지원국》 재지정을 해야 한다고 아부재기를 치고 그들의 《인권재단》을 내몰아 한밤중에 도적고양이처럼 빠라도 뿌리는것이다.

하지만 전쟁으로도, 핵으로도, 제재로도, 더우기 베라파루로는 어쩔수 없는 공화국은 이길해야 이길수 없는 상대인것이다.
《세기적인 착각》이고 《누더기종이장》이 된

지독한 편집병

지독한 편집병이다. 편집병은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나 체계적으로 짜이고 잘 여워진 망상이 오래동안 지속되는 정신병, 망상병이다.
《핵문제》와 함께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쌍기둥을 이루는 《북인권》문제는 《북붕괴》를 바라는 미국의 정신병, 망상병이다.
인권은 매개 민족국가 단위로 보장되며 그 기준은 그 나라 인민자신이 결정한다.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보장해주는 나라는 공정한 인권이 보장된 나라이며 인민이 좋아하고 만족하면 그것이 곧 인권기준으로 된다.

미국이 《북인권》을 집요하게 떠드는것도 그러한 목적에서다.
《북인권》문제를 여론화하여 공화국에 대한 국제적인 영상을 흐려놓고 고립과 제재의 사슬을 2중3중으로 조이는것과 함께 공화국민들이 사회제도에 반감을 품게 하여 스스로 《붕괴》되도록 해보자는것이다.
어불성실, 미국이 1990년대 증업부터 《3, 3, 3붕괴설》이니 그 무슨 《동란설》, 《전략적인내》니 얼마나 공화국의 《붕괴》를 떠들었던가.
하지만 붕괴되고있는 것은 공화국이 아니라 썩어들대로 썩은 인권범죄의 서식장이고 인권불모지인 미국자체이며 마치도 《인권재판관》인듯이 행세하며 인권테로를 감행하던 미국의 패권적 지위이다.
《북인권》, 《북붕괴》의 편집병에 걸린 미국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공화국민들과 인류의 거세찬 흐름에 밀려 역사의 오물장으로 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정혁

조선의 해방과 함께 남조선에 강점한 때로부터도 무려 일흔해, 그동안 미국대통령은 33대부터 44대로 이어졌다.
1950년대 조선전쟁도 일으켜보고 핵위협도, 제재소동도 벌려보았지만 공화국과의 대결에서 한번도 이겨본적이 없고 항복서와 같은 사죄문만 수두룩히 써바친 미국이다.
이전에 《북북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하던 공화국이 오늘은 《불에는 불, 핵에는 핵으로》 맞선다.
세기를 이어 확대강화해 온 강경고립압살도, 새로



집이 없어 한지에서 추위에 떨고있는 미국인



미국에서 인종차별반대시위

《보안법》 개정에 비낀 흥심

민족분열의 70년이 되는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는 전환의 해로 되게 하자는것은 겨례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겨례의 통일의를사외면한채 《중북》소동과 같은 파쇼광풍을 세차게 일으키고 있으며 북남관계의 대전환, 대변혁을 이루자는 공화국의 요구를 한사코 외면하고있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련합) 같은 반국가, 리적단체도 해산할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이니 뭐니 하며 《보안법》 개정움직임을 날로 로골화하고 있다.
이것은 통일운동세력을 완전히 말살해버리려는 반통일파쇼압박행위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대표적인 《반국가단체》라고 하는 범민련만 보더라도 전면적인 통일운동조직이다. 그 산하에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는 지난시기 북남공동선언리행, 미국과 남조선의 북침합동전쟁연습 반대 등의 구조를 들고 투쟁하여왔다. 이것은 민족의 화해와 통일,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너무도 정당하고 의로운 행동이다. 대규모북침전쟁연습때문에 지금 북남관계도 가로막혀있고 핵전쟁위험이 날로 짙어가고있는데 그런 불안장을 하지 말라고 하는것이 남조선에서는 어째서 죄로 되는가 하는것이

다. 이것이 《반국가적행위》, 《리적행위》라면 남조선당국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바라지 않는 대결집단, 전쟁을 추구하는 호전집단이라는것을 스스로 인정하는것으로 된다.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은 온 겨례가 단합하여 통일운동을 거족적으로 벌릴 때 이루어지는것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이 추구하는 목적이 인간의 통일운동을 말살해치우고 북남관계문제에서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실현해보려는데 있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실지로 지금 남조선당국은 분열 70년이 되는 이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여는 일대 전환의 해로 만들기 위해 공화국이 년초부터 제기하는 중대문제들을 한사코 외면하면서 외세와의 합동전쟁연습 강행, 반북베라살포, 《북인권》소동 등 《흡수통일》의 어리석은 꿈을 실현하기 위한 동족대결행위에 계속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인간의 통일운동을 제거해버리려는것이 결국은 저들의 범죄적인 《체제통일》기도를 무난히 실현해보기 위해서이다.
보다싶이 곁으로는 《대화》와 《관계개선》을 바라는듯이 생색을 내면서 속으로는 판꿈을 꾸고 행동도 민족의 화해와 평화지향에 역행하여 침략적인 외세와 함께 대결일변도로 나아가고있는것이 남조선

당국이다.
북남공동선언리행을 요구하는 의로운 통일운동단체들을 범죄시하고 모조리 없애치우려고 《보안법》의 칼을 시퍼렇게 갈고있는 이런 남조선당국을 대화상대가 어떻게 바로 볼수 있으며 그들이 한탄에 마주앉아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론의하겠다고 하겠는가.
남조선에서 《유신》독재로 악명을 떨친 박정희 《정권》 시기에도 《간첩사건》들이 무수히 조작되고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쇠괴를 찾지만 정당, 단체들에 대한 해산까지 규정한 악법은 없었다. 지금에 와서 그때보다 더한 악법을 만들겠다고 하니 남조선사회는 앞으로가 아니라 한참 거꾸로 가고있는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민주와 통일을 위해 부마항쟁의 불길도 일으키고 광주민병기의 봉화도 지펴올렸으며 6월민주항쟁의 거대한 물결을 펼치기도 했다. 남조선인민들의 피와 땀이 스민 민주를 독재로 바꾸어가고있는 현 《정권》이 인민들의 거세찬 분노와 항거의 물결에 직면하지 않는다고 말할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인민의 분노, 겨례의 분노를 바로보고 민심의 바다에서 배가 뒤집히지 않으려면 처신을 바로해야 한다.

《거류민보호》인가, 침략의 길닥이 용인가

지난 15일 일본 《자위대》가 타이에서 사건, 재해 등으로 위기에 처한 자국민을 특로를 통해 구출하는 훈련을 실시했다고 한다. 무장한 《자위대》원들이 동원되어 피난민 역할을 하는 그 나라 주재 일본대사관 직원들과 가족들 70여명을 특로를 통해 공항으로 이동시키고 비행기를 리용하여 주변 나라로 대피시키는 이번 훈련은 《자위대》가 조직되어 사상 처음이다.
원래 일본은 2013년 알제리에서 있던 인질사건으로 일본인 10명이 숨진 이후 해외의 자국민을 차량을 통해 특로로 수송하는데 《자위대》가 동원될수 있도록 《자위대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세계여론의 비난이 두려워 훈련은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전 순니과 극단주의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최근 미국의 《반테로전》에 적극 동참하는 일본에 경고하면서 일본인 2명을 랍치하고 저들의 요구가 실현되지 않자 인질들을 살해한 사건이 터지자 이번 훈련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지금 일본당국은 이번 훈련의 정당성을 적극 설파하면서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수시로 가능하게 하는 영구법제정을 떠들고있다. 그 리유에 대해 일본수상 아베는 《모든 사안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향후 구체적인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다시 립법조치를 새로 할수 없다.》고 역설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여론들은 군국주의부활이 기승을 부리는 속에 일본 《자위대》가 진행한 이번 훈련과 《자위대》의



《거류민보호》인가, 침략의 길닥이 용인가

해외파견을 수시로 가능하게 하는 영구법제정놀음이 단순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외침략의 길닥이용이라고 평가하고있다.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지금 일본에서 군국주의부활책정은 이미 도수를 넘었다.
과거 일본군이 저지른 전대미문의 성노예범죄는 없었다는 강도적인 론리가 일본력사계를 지배하고 국제재판소가 판결한 일본군전범사는 강요에 의한것으로서 전범자가 아니라 해피한 주장들이 일본정계에서 뼈적이 울려나오고있는 판이다.
그런 속에 일본패망 70년이 되는 8월을 계기로 일본수상이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에 《고노담화》, 《무라야마담화》등 역대 총리담화에 들어있던 과거사반성 및 사죄문구를 아예 삭제하려는 기도로 로골화되고있다. 현실적으로 지난 1월 25일 일본수상 아베는 NHK방송에 출연해 《지금까지(력대 총리담화에 담긴)문구를 쓰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아베정권이 어떻게 생각하 고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담화를 내고싶다.》면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을것임을 시사해 나갔다.
일제패망 70년이 되는 올해 세계가 과거 일본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할데 대하여 한결같이 요구함에 도 불구하고 이에 정면 도전하여 저들의 과거죄악을 합리화하는 일본의 파렴치한 행위에 세계가 경악한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과거부정은 그것을 재현하려는데 그 기도가 있다. 일본이 전대미문의 과거죄악을 부정하고 합리화하는것은 아시아를 피로 물들인 저들의 침략책동을 다시 실현해보자는 데 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일본의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책동이 날로 로골화되고 있는 속에 이번 타이에서 벌어진 일본 《자위대》의 훈련을 단순히 자국민보호를 위한 훈련이라고 볼수 없다는것이 세계사회의 평이다.
지난 시기 제국주의나라들은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을 《거류민보호》의 미명하에 감행하였다. 일본 역시 례외가 아니다.
일본이 1894(갑오)년 《거류민보호》의 구실밑에 우리 나라를 침략하여 농민봉기군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식민지 지배의 길을 열어놓은것은 그 한 사례이다.
섬나라인 일본에 있어서 해외침략의 첫번째 대상은 조선반도이다.
조선반도 《유사시》 미군을 도와 《자위대》를 파병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일본정계에서 공공연히 튀어나오는것은 이에 대한 립증이다.
과거 일본군이 그러하였던것처럼 어리석은 《대동아공영권》의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있는 일본이 단순히 조선반도에만 침략의 마수를 뻗치려는가 하는것이다. 그래서 세계가 일본의 군사활동에 대해 경계와 각성의 눈초리를 돌리고있는것이다.
일본은 어제날의 조선, 아시아가 아니라라는것을 명심하고 군국주의해외침략의 뜸튼 야망을 버려야 한다.
본사기자 김용철

설명절의 민속놀이 풍경



민족의 자랑-평양민속공원을 찾아서

발해 궁전

평양민속공원에는 발해 5경의 하나였던 상경룡천부의 궁성건물들 가운데서 궁성의 남문과 제1궁전, 제4궁전(서구침전) 등의 3동을 고고학적발굴자료에 기초하여 상상복원한 발해궁전이 있다.

상경궁성 남문

상경궁성 남문의 기단은 현무암으로 규칙적으로 정연하게 쌓았으며 동쪽과 서쪽은 결문기단(기단 총길이 18m)으로 되어 있다. 남문기단의 높이는 5.2m, 동서길이 45.2m, 남북길이는 40.66m, 남북너비는 28.2m, 동서너비는 26.4m이다.

기단우에는 50개의 기초돌을 정연하게 배열하였고 기초돌사이거리는 약 2.2m, 기초돌직경은 74-76cm이며 모두 기둥 밑장식을 하였다.

상경룡천부 제1궁전

제1궁전은 밑단의 동서길이 약 56m, 남북 너비

약 24m, 기단의 높이가 약 3m나 되는 큰 건물이다. 기단 앞면의 좌우와 뒤면 한복판에 기단으로 오르내리기 위한 계단이 있으며 기단밑부분을 인동무늬로 장식한 벽돌을 쌓았다. 몸체는 정면 11칸×측면 4칸(그중 한칸은 앞퇴칸)이며 기단 동쪽과 서쪽에 측면 두칸인 경사진 회랑이 놓여있다.

상경룡천부 제4궁전

제4궁전은 왕실의 기본 침전이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서길이 약 27m, 남북너비가 15m이며 본채와 좌우 나래채로

되어있다. 발굴결과 상경룡천부 제1궁전의 기단과 기단 사이에서 기단우를 장식하는 돌사자머리가 7개 이상이나 출토되고 제4궁전에서 구들이 드러났다. 이것을 통해서도 발해가 고려를 계승한 국가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발해궁전의 건축술만 놓고 보아도 《해동성국》으로 이름을 떨친 발해의 역사와 문화를 잘 알 수 있다. 평양민속공원의 발해궁전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민속전통을 보여주는 민속박물관으로 리용되고 있다.

본사기자 고영숙



상식

사회생활에서의 차례와 질서

우리 민족의 오랜 미풍량속에는 사회생활에서 차례를 정하고 질서를 잘 지켜온 것도 있다. 사회생활에서의 차례는 나이의 차이, 사회적직급의 차이, 학식과 덕망의 차이에 의해 정해졌다. 기본적으로는 나이의 차이에 의해 정해졌다. 나이가 많으면 웃사람이고 적으면 아래사람으로 인정하고 대하였다. 이런 경우 웃사람은 아래사람을 사랑하고 아래사람은 웃사람을 존경하는 도덕률리관계가 지배하였는데 이것을 《경장에유》라고 하였다.

나이의 차이로 차례를 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옛 기록에는 《대체로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서로 화목하고 공경하기에 노력하되 나이가 자기보다 배나 우이면 어버이같이 섬기고 10년이 우이면 형님같이 섬기며 5년이 우이면 동무와 같이 대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적직위의 높낮이에 따라 정하기도 하였다. 직급이 높은 사람을 상급자로, 낮은 사람은 하급자로 인정하고 대하였다. 이런 경우 상급자와 하

급자 사이에는 상급자가 하급자를 지휘통솔하고 하급자는 상급자를 받드는 관계가 존재하였는데 이런 것을 《사존사비》라고 하였다. 나이의 차이, 직급의 차이에 관계없이 차례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학식이나 덕망, 지식수준과 수양정도의 차이에 따른 것이었다. 학문과 덕망에 있어 남의 거울이 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웃어른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래사람으로서 존경하는 사람과 존경받는 사람간의 차례가 있었다. 근로대중속에 유지되어온 차례와 질서는 그 내용이 인민적인 것으로 하여 오늘날도 전해내려오고 있다. 본사기자

차는 어느 것이 좋은가

차에는 대체로 록차, 홍차, 꽃차 등이 있다. 록차에는 비타민C와 기타 영양성분이 비교적 많이 들어 있다. 록차는 혈액압과를 낮추고 로쇠와 혈관경화를 방지하는 작용을 한다. 그런데 성질이 비교적 차므로 신체가 허약한 노인들과 위병환자들은 마시지 말아야 한다. 홍차는 발효과정에서 정을 거쳐 만든 것이므로 비타민C가 산화되어 거의 없는 차이다. 그러나 자분성이 적고 정신을 흥분시키며 피로를 덜어주

고 위를 덥혀 소화를 돕는 작용을 하므로 위병환자들과 로년기환자들에게 좋다. 꽃차와 록차는 별로 큰 차이가 없다. 꽃차는 록차를 가공하여 만든 것인데 보통 생화향기를 흡착시켰다. 록차와 꽃차의 영양가는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남방사람들은 록차를 즐기고 북방사람들은 꽃차를 즐긴다. 오톱차추출액은 염증억제효과가 센데 그속에 들어있는 단원, 카페인 등은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록차, 홍차에서 추출한 물질들을 서로 비교시험한 결과 오톱차가 가장 강한 염증억제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사기자

유모아

가시아버지의 딸두돈

옛날 어느 한 마을에 음식솜씨가 아주 서툰 며느리가 있었다. 그의 집 식구들은 며느리를 좋아하지 않았다. 하루는 그의 남편이 가시아버지를 찾아가서 그러한 사실을 말해주면 서 직접 가서 딸의 음식 솜씨를 보라고 불부는 소리를 하였다. 가시아버지는 사위와 함께 사돈집에 가서 자기 딸에게 말하였다. 《애야, 오늘 식구들 앞에서 한번 솜씨를 보여주어라. 나도 어디 좀 보자.》 며느리는 빵을 하려고 큼직한 소랭이에 밀가루를 반죽하기 시작하였다. 반죽물이 뭉어지면 친정

아버지가 가루를 더 넣고라고 시켰고 반죽물이 되어서면 또 물을 넣으라고 하였다. 이렇게 물과 밀가루를 엮바꾸어가며 퍼넣다나니 어느새 반죽물이 소랭이에 넘쳐나게 되었다. 아버지는 다른 소랭이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 소랭이도 다 찻는데 반죽이 제대로 되지 못하였다. 《이제는 밀가루가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친정아버지는 사돈집식구들에게 좀 보라는듯이 《우리 딸이 잘못한다고 나무랄 수 없구만요. 이 집에 밀가루가 모자라는군요!》하고 말하였다.

사화

공민왕릉 (2)

글 전철호, 그림 김윤일

《하!-》 시데하라는 손쉽게 부하들을 다루는 제 수완에 스스로 흠족하여서 이번에는 려송연이 아니라 장족을 양복자락밀의 허리춤에서 뽑아들었다. 이 장족은 리완옹이 진상한 순금제다. 시데하라는 썬담배를 대통에 꽂고 다져넣고 딱성냥을 곁다. 그는 파르스를 한 연기를 그물그물 피우며 려송연보다 더 맛나게 빨다가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에도, 제군들도 얼마 전에 <전시청국보물수집법>을 받아보았을거다. 제국이 왜 이 법에다 반도의 문화재는 일언반구도 울리지 않았는지 그걸 알아야 한다. 그건 반도는 이미 우리의 수중에 장악된 땅이어서 구태여 법률적인 장치가 필요치 않은거야. 우리 제국이 청국같은

나라들의 문화재를 모아들이는 것이 학술상의 과제이자 동아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 인류공동의 대업이라 했다만 그 본질은 우리 야마도민족의 정신을 과감하게 고무격려하여 우리 일본을 아시아, 나아가서는 전세계의 맹주로 되게 하자라는 것이다. 《하!-》 문가에 뺨뺨이 선 왜인들은 광기가 나서 배에다 힘을 주었다. 시데하라는 입술이 얇팍한 문관의 전형이지만 《이 일은 이또 히로부미 추밀원장만이 아닌 천황폐하께서 제일 관심하시는 국사이다.》라는 말만은 물어버렸다. 아직은 물어버렸다. 아직은 조선이란 나라가 합법적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음을 온 세상이 다 알도록 하자면 시일이 좀 걸려야 하고 보다는 미국이나 영국같은 려강들의 체

면도 생각해주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키다리 구노라는 사무라이의 광증이 불타올라 애송이같은 마루야마의 육설에 기가 죽었던적이 언제나 하고 거만한 자세로 두각두각 발걸음소리를 울리며 방 한가운데의 박달나무책상으로 다가가 품에서 차폭차폭 접은 모조지를 꺼냈다. 이어 대문짝만 한 지도가 책상을 덮었다. 《각하!》 키다리 구노라는 부르듯 같은 마루야마의 상형된 낮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눈처럼 하얀 와이샤쓰에 나비넥타이를 매고 검은 양복을 입은 시데하라에게 존경의 시선을 모았다. 《이건 1대 2만지도입니다. 이 지도엔 개성일대의 문화재들을 빠짐없이 올렸습니다. 물론 리완옹씨의 고증까지 받았

습니다마는 그보다는 이다나까상과 함께 일일이 편답하면서 확인한 세상에 돌도 없는 보물도입니다.》 시데하라는 몸을 묻은 안락의자에서 용수철마냥 튀겨일어나 감춘 《보물》을 찾는 야마나카 책상에 달라붙었다. 검둥개같은 제복차림의 마루야마도 직업적인



본능으로 어느새 책상앞에 서있었다. 탐욕스러운 눈알들이 보물도의 속을 속속히 파헤쳤다. 송악산을 축으로 서쪽은 려성강, 동쪽은 립진

강, 남과 북은 한강과 금천으로 경계를 지은 큰 지도에는 몇호 안되는 마을들이며 이름을 모르는 야산들, 개울들까지 꼼꼼히 그려져있었다. !!! 시데하라와 마루야마의 쌍심지들이 약속이나 한 듯 송악산의 서쪽부터 훑고있었다. 세나라를 통일한 고려

의 령, 31대 공민왕의 현릉, 19대 명종대왕의 지릉, 그의 원릉, 건릉, 동구릉, 화곡릉, 소릉의 5릉 때에 의릉 등이 세세히 기록되어있었다. 송악산 북쪽에는 4대 광종대왕의 현릉이 있었고 개성성안에는 9대 덕종대왕의 속릉, 10대 정종대왕의 주릉, 이외 순릉도 올라있었고 지어는 만월대의 착 우에 있는 왕건태조대왕의 할머니 《릉녀》 원황후의 온혜릉까지 빠지지 않았다. 왜인들의 입은 하나같이 귀밀까지 돌아갔다. 한참만에 시데하라가 낯장자답게 먼저 《음... 이만하면 거의다 나온것 같아.》 하고 흥분해서 말하자 마루야마는 허리에 매달린 장검을 절그럭거리며 《좋아! 좋아!》 하고 반말을 주는 아이처럼 기뻐하였다. 제 자리들에 돌아와 앉은 두 피수의 탄복과 야욕, 기대어린 눈길들이 부하들의 불깃해진 낮판을 쓰다듬었다. 이번에는 부르듯 같은 마루야마가 시데하라를 앞질러 입을 열었다.

왕건태조대왕의 현릉, 8대 현종대왕의 선릉, 그와 잇닿은 2개의 동릉, 25대 충렬왕의 왕후 제국대장공주의 고릉과 그 옆의 2개의 동릉, 29대 충목왕의 명릉과 그와 이웃한 2개